

‘두줄’로션으로 국제 특허

국제 발명품 대회서 금상

호산치과 정충현 원장



정충현 원장이 천연물질을 사용해 개발한 두줄 아토 로션이 아토피균을 검소시키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줄 시리즈 2탄, 이번엔 아토피 잡으러 갑니다”

치과 의사가 개발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잡는 기능성 제품이 국제 특허는 물론 국제 발명품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아토피 제품은 피부과 의사가 아닌 치과 의사가 개발한 것도 이재롭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호산치과’ 정충현 (57)원장. 그는 발명가이자 친환경 기능성 생활용품 전문업체 (주)투라인스의 대표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엔 과짜로, 특이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이렇게 1인3역을 거둔다니 소화해내는 것은 환자에 대한 애정이 큰 탓이다.

그가 발명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10여년 전에 뇌졸중 환자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환자가 수년 동안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치아를 전혀 관리하지 못해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환자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능이 좋은 치약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두줄치약(듀오 클린)으로 입냄새와 치주질환에 효과가 타월

해 지금도 전국의 약국이나 치과 등에서 팔리고 있다.

치약 개발 후에도 연구를 쉬지 않았던 그는 이 치약이 아토피 염증 유발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4년간 연구 끝에 아토피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과 아토피 증상을 악화하는 세균에 동시에 작용해 아토피 증상 완화에 타월한 효능이 있는 두줄 아토 로션과 바디워시·샴푸를 개발했다.

정충현 원장은 “개발 제품의 아토피 증상 완화 효능은 이미 국내는 물론 국제특허와 논문으로 입증됐다”며 “지난달 서울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는 두줄 아토 로션 등의 제품이 금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구연산은 박테리아를, 제3인산나트륨은 곰팡이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식품에 첨가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이를 천연물질은 곰팡이균과 세균을 동시에 억제시켜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선대 의대 미생물학교실에서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천연물

질을 섞어 중화반응을 일으킬 때, 아토피 균의 감소 효과가 최소 12배에서 150배까지 증가하는 사실을 밝혀, 이를 2008년 한국 미생물학회에 제제하기까지 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응용했기 때문에 투라인스(두줄)로션에는 구멍이 두 개다. 제품을 누르면 한 쪽 구멍에선 구연산이, 다른 쪽에선 제3인산나트륨이 나오고 이를 곧바로 손으로 비벼 사용하면 효능이 발휘된다.

산성과 알칼리성 물질이 분리된 상태에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투라인스의 ‘항균 및 항진균 효과가 우수한 피부 외용제 조성물’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 말 국제특허위원회에서 사업성·진보성·신규성 등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국제특허를 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6일 특허를 취득했다. 현재 두줄 아토 로션 등은 투라인스 홈페이지(www.dujul.com)에서 판매중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 원장은 “앞으로 여드름 치료 크림이나 노인성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회종기자 chae@

보성경찰 전·의경 어머니회 멘토-멘티 결연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최근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돋보이자 전·의경 어머니회를 활성화하고 멘토-멘티 결연식 행사를 가졌다.

장흥군 산림조합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장흥군 산림조합(조합장 신흥철)은 최근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이사장 이명호)에 25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군 제공

세계로병원 대한노인회 협력병원 협판식



세계로병원(원장 정재훈)과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단장 나병기)은 최근 광주 수완지구 세계로병원에서 대한노인회 협력병원 협약식 및 협판식을 가졌다.

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 행안부장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군익)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광주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광주시의사회 이정남(사진 왼쪽) 회장을 최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2012 광주시의사회 신년 인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1952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현주(오른쪽)회장에게 전달했다.

지관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대한불교 조계종 명예원로 제32대 총무원장을 지낸 지관스님의 다비식이 6일 오후 경남 합천 해인사 연회대에서 거행되고 있다.

김재열 광주일보 전 논설위원 별세



유족으로는 부인 문희정씨와 사이에 유진·윤아양을 두고 있다.

발인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02-220-3352, 231-8907. /채회종기자 chae@kwangju.co.kr

순천 성가를로 병원장에

김신곤 前 전남대병원장

김신곤 순천 성가 를로 병원장이 최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및 명예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전남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 행정안전부
▶ 고위공무원 전보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종해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김갑섭 ▶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 파견 김혜영 ◇ 과장급 전보 ▶ 재난위기종합상황실장 김경원 ▶ 재난안전정책과장 이승우

▶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권순록 ▶ 국립방재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최훈 ▶ 이북5도 광안남도 사무국장 주광웅

◆ 광주문화재단 ◇ 1급(전보) ▶ 전통문화관 감동을 ◇ 3급(전보) ▶ 정책기획팀장 박강배 ◆ 홍보교류팀장 김영순 ▶ 공연전시기획팀장 곽규호 ▶ 재무관리팀장 김홍태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김길희·김희자씨 차남 태현군 김선남(호남일보 사장)·이원심씨 장녀 민경양=15일(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컨벤션홀(당일 오전 5시30분 학동 삼익세리미아파트 정문앞 전세버스 출발)

동창·동문회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김형운)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10일(화) 오후 6시 30분 상록회관 3층 대연회장.

종친회

▶ 진주강씨 청·장년 종친회(회장

향우회

알림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모집

기타

기타